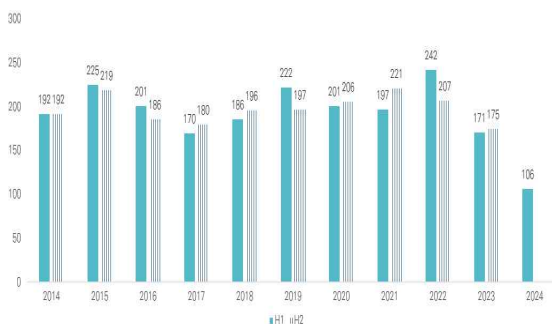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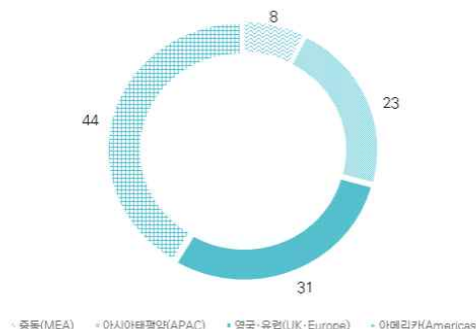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2024년 상반기 글로벌 보험시장의 인수합병(M&A) 거래 건수는 최근 15년 중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글로벌 보험시장에서의 M&A 거래 건수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 보험시장은 10억 달러 이상의 대형 거래가 성사되며 주목을 받은 반면, 아시아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M&A 거래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한편, 유럽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보험시장의 중심축이 런던에서 유럽 대륙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4년 상반기 글로벌 보험시장의 인수합병(M&A) 거래 건수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높은 차입비용 등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지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2024년 상반기 중 M&A 거래 건수는 106건으로, 2023년 상반기 대비 약 40% 감소했으며, 이는 2013년 상반기(162건) 실적보다도 낮은 수치임(그림 1) 참조
 - 2024년 상반기에 체결된 가장 큰 규모의 거래는 브룩필드 재보험(Brookfield Reinsurance)이 미국의 AEL (American Equity Investment Life Holding Company)을 인수한 것으로, 거래금액은 35억 8,700만 달러임)
 - 브룩필드 재보험은 퇴직연금 및 생명보험 사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EL을 인수함

〈그림 1〉 보험시장의 글로벌 M&A 거래 건수 추이 (단위: 건)



〈그림 2〉 지역별 M&A 거래 건수 분포(2024년 상반기) (단위: 건)



자료: CLYDE & CO(2024), "Insurance Growth Report 2024: Mid-year update"

자료: CLYDE & CO(2024), "Insurance Growth Report 2024: Mid-year update"

1) Brookfield Press Releases(2024. 5. 2), "Brookfield Reinsurance Completes Acquisition of AEL"

- 글로벌 보험시장에서의 M&A 거래 건수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북미 지역의 M&A 활동은 타 지역에 비해 활발하였으나 아시아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M&A 거래는 상대적으로 저조함(그림 2) 참조)
 - 2024년 상반기 중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44건의 M&A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유럽, 아시아 등의 순임
 - 2024년 상반기 중 글로벌 보험시장에서의 대형 M&A 거래는 미국(3건), 아시아(2건), 유럽(1건)에서 발생함
- 미국 보험시장은 브룩필드 재보험의 AEL 인수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보험시장 중 10억 달러 이상의 대형 거래가 발생한 유일한 시장임
 - 사모펀드회사인 KKR은 2021년 연금·생명보험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Global Atlantic Financial Group의 경영권 지분 매입 이후, 2024년 1월 Global Atlantic Financial Group의 잔여 지분 37%를 27억 달러에 인수함²⁾
 - 재보험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Prosperity Life 그룹은 판매채널을 확장하고 그룹 간 시너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2024년 7월 19억 달러에 National Western 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³⁾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M&A 시장은 전년 대비 다소 축소하였으며, 중동·아프리카 보험시장의 경우 해외보험회사들이 사업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건강 및 생명보험 사업부문이 M&A 시장의 주요 거래대상으로, 스미토모생명은 2024년 3월 싱가포르생명(Singapore Life)의 지분을 46억 싱가포르 달러에 인수함⁴⁾
 - 주요 선진보험회사들이 신흥시장에서 사업을 인수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성사된 거래의 40%가 국경 간 거래임
 - Abu Dhabi National Insurance는 2024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의 Allianz Saudi Fransi Cooperative Insurance의 지분 51%를 인수하였으며, 이는 2024년 상반기 중동 지역의 최대 규모의 거래로 기록됨⁵⁾
 - 남아프리카는 높은 인플레이션, 고금리, 저조한 경제성장,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M&A 거래가 둔화됨
- 한편, 유럽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보험시장의 중심축이 런던에서 유럽 대륙으로 이동하고 있음
 - 이탈리아 보험회사인 Generali는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에 진출한 스페인 보험회사인 Liberty Mutual을 2024년 1월 23억 유로에 인수했으며, 이는 Generali가 지난 10년 동안 체결한 가장 큰 규모의 거래임⁶⁾
 - Generali는 Liberty Mutual 인수로 스페인에서는 중개사와 방카슈랑스 채널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포르투갈에서는 손해보험시장의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아일랜드에서는 손해보험시장에 최초로 진출함
 - EU의 'Mobility Directive' 제정으로 국경 간 M&A 활동이 과거보다 용이해졌으나, 규제기관에서는 생명보험 분야에서 사모펀드 투자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인지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⁷⁾

2) A. M. Best(2024. 1. 3), "KKR Completes \$2.7 Billion Acquisition of Global Atlantic"

3) PR Newswire(2024. 7. 9), "National Western and Prosperity Life Group Announce Closing of \$1.9 Billion Cash Merger"

4) Insurance Aisa(2024. 3. 18), "Singlife joins Sumitomo Life as a fully-owned subsidiary"

5) Allianz SE(2024. 4. 18), "Allianz completes transaction to sell its 51% stake in Allianz Saudi Fransi to Abu Dhabi National Insurance Company(ADNIC)"

6) Insurance Business America(2024. 2. 2), "Liberty Mutual completes sale of biggest business outside US"

7) FT(2024. 3. 24), "Is private equity's bet on life insurance turning sour?"